



1막시밀리안 2세 책상 앞에 선 한-프 정상 부인



2



3

2 한지로 원형 되찾은 교황 요한 23세 지구본과 복원 전문가 벨라 포지(가운데) 3 교황 요한 23세 재단 관계자가 한지를 이용한 지구본 복원을 발표하고 있다. 4 전주한지박물관

## 전주 한지 교황청도 루브르박물관도 반하다

세계 기록문화유산 복원 재료로 전주 한지(韓紙)가 주목받고 있다. 교황청도, 루브르박물관도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주 한지의 생명력에 매료됐다. 루브르박물관은 “질기고 보존성이 뛰어난 고품격 복원지(紙)”라고 가치를 인정했다. 전주 한지로 복원한 ‘고종황제와 바티칸 교황 간 친서’ 복본을 받은 교황청도 반색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자비에 살몽 학예장은 “전주산 다펀 나무 재료로 만든 전주 한지를 사용해 보니 질기고 복원력과 보존성이 뛰어나 기록문화유산 복원 종이로 손색이 없다”며 “오랫동안 지켜낸 고유의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전주 한지가 감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한지 제조공장을 찾아 한지 뜨는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전주 한지가 루브르박물관뿐 아니라 세계 지류(紙類) 시장에 진출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루브르박물관이 한지에 관심을 보인 것은 2017년 전주 한지를 이용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2세(1527~1576) 책상의 부서진 손잡이를 복원하면서부터다.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할 당시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순방 중 프랑스 대통령 부인과 함께 찾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귀한 유물인 막시밀리안 2세 책상 복원에 한지를 사용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김 여사는 “아흔아홉 번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는 한지의 부드럽고도 강인한 미덕을 전 세계가 아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의 판화 등 다른 소장품을 복원하는데 우리의 전통 한지가 활용되고 있다. 또 전 세계 문화재 복원 중심지로 꼽히는 이탈리아와 교황청에서 한지를 활용해 소장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2017년 김승수 시장은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전주

한지로 6개월에 걸쳐 복원한 ‘고종황제와 바티칸 교황 간 친서’ 복본을 바티칸 비밀문서고 책임자인 장 루이 브뤼게 대주교에게 전달했다. 이 친서는 1904년 고종 황제가 교황 비오 10세의 즉위(1903년) 소식을 뒤늦게 듣고 축하하기 위해 보낸 서찰로, (교황이) 우리나라에 복을 빌어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바티칸 비밀문서고에 잠들어 있던 이 문서는 2016년 이탈리아 고문서 전문가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전주 한지로 복원돼 100여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김 시장과 동행한 정종휴 주교황청 대사는 복간된 고종 서한의 의미와 전주 한지 등에 대해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간략한 설명을 곁들였는데, 프란체스코 교황은 복본을 받아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탈리아의 교황 요한 23세 박물관이 소장한 둘레 4m짜리 지구본 복원에도 우리 한지가 사용됐다. 2017년 복원된 이 지구본은 1958~1963년 재위한 교황 요한 23세의 주문으로 제작된 것으로, 교황 23세의 순례지를 포함한 당시 세계 가톨릭 교구가 표기돼 있어 가톨릭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지구본은 처음 제작된 지 50여년이 지나면서 일광과 난방열 등의 영향으로 표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지구본이 평면적 유물과 달리 원형으로 돼 있어 복원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한지를 사용한 것이 주효해 옛 모습을 복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4



1 한지의 화려한 변신 2 화려한 색상의 한지  
3 한지 의상 런웨이

올해로 24년째 한지문화 축제를 이어온 전주시는 2007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저를 전주 한지와 전북 공예품 등으로 꾸며 큰 호응을 얻자 2009년 외교부와 함께 재외공관을 한스타일로 공간 연출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저 등을 대상으로 했다. 미국 시애틀, 영국 런던 등에 있는 한국 대사관저 창호를 전주 한지로 바꾸고 한지로 만든 등, 병풍, 쿠션, 조각보 등 공예품 등으로 꾸몄다.

그러자 딱딱하고 근엄하기까지 한 사무실이 전통 사랑방으로 거듭났다. 지난해까지 재외공관 28곳이 전주 한지를 시설에 사용했다. 교민들은 향수를 느꼈고, 현지 방문객들은 감탄했다.

전주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지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의 제지 장인과 유수의 박물관 관계자를 거의 매년 초청해 기록물 복원용지나 산업제품 재료로서의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상용화도 꾀하고 있다.

나아가 유네스코와 전주 한지를 세계문화유산 보존 재료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LOI(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내는 물론, 프랑스, 일본, 인도, 베트남, 이탈리아 등 각국을 넘나들며 한지를 알리는 국제콘퍼런스와 전시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년을 이어온 전주 한지의 마법이 루브르 박물관의 빛바랜 보물들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면서 “전주 한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시장은 “세계 기록문화유산 복원 재료로 전주 한지가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고 세계 지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약 1년에 걸친 복원 작업을 이끈 이탈리아 지류(紙類) 복원가 벨라 포지 씨는 “다른 재질의 지류를 시험적으로 붙여보니 곡선 면에서 주름이 잡히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지는 뛰어난 장력으로 곡면에서도 완벽한 배접이 가능해 문제점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지가 수 십년간 세계 문화재 복원시장을 독점해 온 일본의 화지(和紙)나 중국의 선지(宣紙)보다 치수(가공 처리 때 가로·세로 줄어듦)의 비율이 낮음) 안정성과 장력, 복원성 등이 뛰어나 기록문화유산 복원 재료로 새롭게 인정받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비닐류 깨끗한 비닐봉투로 분리배출	분리배출 기준		재활용 가능 여부			
	음식물 등 이물질이 깨끗이 씻은 상태로 분리배출 【메모접기 형태로 배출】			( O )	( X )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비닐류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폼 흰색만 분리배출	상자류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상태로 분리배출			( O )	( X )
	용기류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			( O )	( X )
	음식물 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상태로 분리배출 • 색상·무늬 스티로폼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O )	( X )
※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거나 코팅된 것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마트·편의점 이용시 **장바구니** 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 같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불편사항 연락처**

- 완산구 자원위생과 ☎220-5338
- (주)사람과환경 ☎214-5200
- 덕진구 자원위생과 ☎270-6336
- 호남RC(주) ☎214-5265